

科學技術史料

보존의

대책과 방향

朴 益 洙

金 容 雲

俞 景 老

科學史料보존을 위한

제도적 措置절실



朴 益 洙

〈韓國科學著述人協會 회장〉

歷史研究에 있어서 그 사실의 범위와 중요성이 크건 작건, 그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항상 어려운 문제점을 던져주는 것은 그 사실의 起源(뿌리)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의 시발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경우도 그 사실 혹은 사건의 起源에 관한 원인과 그러한 원인을 실증할 史料 그리고 시작에서부터 이루어지는 初期資料들이 흔히 소홀히 취급되고 허술하게 보관되는 것이 상례이다. 그래서 몇십년 몇백년 지나면 歷史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起源(뿌리)에 대한 史料를 찾기 위해 고심하고 그것에 대한 定說을 세우는데 많은 논쟁과 시시비비를 하게 된다.

옛날부터 우리 국민들은 族譜에 대한 관심은 크지만 社會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각己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자료를 소중하게 정리하고 보관하는 인식과 관습은 그렇게 철저하지 못한 편이다. 政府 各部處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는 後進國에서 先進國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변혁」의 기원과 초기과정에 관한 자료가 어느정도 잘 정리되고 보관되어 있는지. 몇백년 몇천년 후의 후손들이 우리의 오늘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史料에 대한 배려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우리의 오늘날 科學文化財에 대해서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歷史의 전환기에 있으며 그 전환의 근본 원동력 즉, 근본 추진력은 科學技術 곧 尖端科學技術이라 믿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전환기에서의 尖端科學技術에 관한 자료(시설·器機 및 記錄 등)의 정리와 보존을 장래에 있어서의 우리 社會 모든 분야에 관한 研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직접적인 중요한 史料가 될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原子力文化財保存에 관한 글을 여러번 썼고 1981년에 韓國科學史學會 內에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를 설치하고 그 史料에 관한 조사와 보관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여 왔다.

그 한 例로써 1987년 2월 17일에 「原子力文化財保存에 관한 建議書」를 작성하여 韓國科學史學會, 韓國原子力學會 및 韓國原子力史資料센터의 共同名義로 관계당국(科學技術處, 한국에너지연구소, 韓國電力公社)에 건의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1956年 文敎部技術教育局에 原子力課를 신설한 것이 “우리나라 原子力時代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하면, 1959년 原子力院과 原子力研究所가 발족하고 최초의 TRIGA-MARK-II (100KW)研究用 原子爐를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 原子力時代의 돌입”을 선언한 획기적 事實이었다.

이러한 原子力事業의 추진은 당시의 침체되었던 우리 科學界에 새로운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준 동시에 尖端科學을 지향하는 우리의 분명한 결의와 확고한 도약대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더욱 1962년부터 계속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다시 선진국으로 지향하게 된 그 科學技術人力의 모체도 바로 이러한 原子力事業과 깊은 연유가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우리의 최초 研究用 原子爐와 다른 최초의 施設 및 器機들은 民族歷史의 획기적인 전환점에 있어서 그 계기의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 尖端科學의 최초의 대표적인 상징으로도 누구나 크게 공감하고 자랑스랄만한 것이라 하겠다. 말하자면 그것들이 將來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商業的 原子力發電 및 放射線産業的 이용은 물론, 오늘날 모든 尖端科學技術의 선도적인 계기와 역할을 한 歷史的 科學文化財로 指定하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建議를 하고자 한다.

1. 현존하고 있는 TRIGA Mark-II, III 연구용 原子爐建物の 지역을 原子力文化財의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곳에 上記 研究用原子爐를 위시하여 10만큐리 Co-60 감마照射施設과 300KeV 加速裝置 등 원자력관계의 모든 문화재를 종합 보존할 것. 따라서 이러한 구상에 적합할 충분한 地域(坪數)을 미리 확보할 것.

2. TRIGA Mark-II, III 연구용 原子爐建物에 부설된 모든 研究室은 다시 개조하여 原子力研究의 初創期부터 사용했던 모든 연구기기 사진, 기록 등 관계자료의 展示室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

3. 현존하고 있는 TRIGA Mark-II, III 연구용 原子爐建物を 『原子力記念館』으로 개칭하고 이 지역을 후진들의 훌륭한 原子力教育場所 및 原子力啓蒙場所로 발전시킬 것.

4. 이 地域 庭園에 모든 原子力 關係人들의 誠金에 의한 상징적인 原子力記念塔을 건립할 것.

5. 이러한 事業推進을 위하여 조속히 原子力文化財保存委員會(假稱)를 구성 운용할 것.

「歷史를 의식하며 자기임무를 수행하는 爲政者는 결코 나쁜 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名言처럼 그것이 나쁜 사건이건 좋은 사건이건 史料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歷史館같은 社會教育의 중

특집/우리나라 과학사료 보존실태와 문제점

요성을 과시하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歷史資料 保管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정치풍토나 사회풍토의 조성은 참으로 國民의 自主心, 自愛心 그리고 愛國心을 높이는 커다란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후손들의 우리 歷史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있어서도 매우 유익하고도 뜻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부터 특히 尖端科學技術에 관한 것에 대하여 그 史料的 가치를 평가하고, 정리하고, 보존하는 學會別, 研究所別, 學校別 등의 史料評價保存委員會를 만들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평가하고, 보존하는 責任部署를 行政的·制度的으로 講究 實行한다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도 중용한 일이라 하겠다.

情報資料수집 정리할

統攝기관 필요



金容雲

(漢陽大 數學科교수)

미래는 정보사회라고 하는데, 이미 그 특성은 우리 주변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많은 학술정보의 범람과 함께 지나간 학술정보에 관해서는 금방 무관심해질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학사적 자료의 정리단계를 명확히 밝혀 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과학사 연구에서는 정보에 관해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역사적인 측면으로 과학발전 과정에 중요한 정보만을 택하여 系譜를 엮는 일이다. 한 말 되는 구슬 중에서 계단적으로 의의있는 것들을 골라 꿰매어서 보배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 작업에는 과학사로서의 철학이 系譜의 순서로 정하게 된다.

둘째는 학술정보의 측면으로 시기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을 다룰 때이다. 즉, 학술정보가 직접 새로운 창조에 도움이 될 경우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과학적 창조에 있어서도 先行者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무시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창조를 위한 과학정보의 정리이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여 과학사적인 자료를 모을 때, 이 두가지 면이 고루 포함되어야 하고, 동시에 정보사회라는 절실한 상황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가령 최근에 나오는 과학 교과서들 가운데에도 이미 손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 흔히 보는 교과서가 그러한데, 이론서, 개몽서나 해설서의 경우는 더할 것이므로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조직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한다. 가칭 '과학도서관'이라 하는 조직기구를 마련하여 앞으로 수집되는 자료와 과학도서들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최되는 학회의 횟수도 점점 많아진다. 단순히 국내 전문학자들만의 학회가 아닌, 외국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학회도 있다. 이들 학회의 활동 내용에 관한 기록 및 자료(Abstract, 논문 등) 등을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학회(가령, 대한수학회와같은 전공중심의학회)가 주최할 경우는 물론 다른 단체가 주최할 경우(정부, 연구소...등)도 감안하여, 그때마다 모든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기관이 제도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논문 형식이 아닌 정보자료의 수집문제가 있다.(전산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같은 것) 이러한

내용들도 조직적으로 수집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계산기의 계열(하드웨어)에 관한 정보수집을 전담하는 기관은 더욱 시급하다.

앞으로의 학술연구가 더욱더 學際的(Interdisciplinary)인 성격을 띠는데,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망실할 우려가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료와 정보를 수집, 기록하는 기관은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내용과 수집목록은 어느 한 기관(가령, 科總)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조직적인 발굴작업과 광범한 目錄作成시급

俞 景 老
(韓國科學史學會회장)

◇ 과학문화재의 조사와 목록작성

科學的 유품, 유적, 도서, 서화 등에 걸쳐서 철저한 조사 끝에 일관된 목록을 작성한 것.

이미 발표된 文化財의 목록작성과 아울러 미발추된 科學文化財의 조직적인 발굴작업을 전개할 것이며, 위의 목록에 계속해서 추가되도록 한

다.

단 國內에서 제작되고 편찬된 것에 한하지 말고 外國에서 구해다가 사용했던 유품이나 典籍 天文地理圖 등도 이 文化財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 과학문화재의 보존과 이용

科學史博物館을 신설하여 되도록이면 많은 科學文化財를 수집 전시하되 原品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복제품, 복원품을 제작, 전시하여 교육과 연구에 이용케 하여야 할 것이다.

科學的 遺跡을 철저히 조사하여 標石에 의하여 그 장소와 유래를 표시하고 더 이상 유적의 손실이 없게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文獻과 書畫類는 마이크로필름을 만들어 이용하되 별도로 影印本을 만들어 各圖書館에 보관 및 실용화를 기하고 原典은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는 상태로 영구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國內에 들어왔어야 할 文獻類 中에서 미처 輸入되지 못했던 中國 기타 外國의 古文獻도 새로이 입수하여 科學古文獻에 추가하여 藏書의 내용을 완비하고, 이 古文獻目錄에 추가해야 할 것이다.

◇ 과학유품의 복제와 복원작업

불행했던 역사 속에서 파괴된 유품과 완전히 소실된 유품 중에서 귀중한 것들 예컨대, 報漏閣, 欽敬閣, 日景定時儀, 潭天時計 등도 복원하여 작동하는 상태로 전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 밖의 유품의 보수, 복제도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연구지원제도의 마련

科學史文化財 및 우리나라 科學史研究에 대한 일관된 研究費支援制度를 확립하여 우리나라의 科學史를 밝히고 科學文化財의 정당한 평가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다.